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이나마 나아져서 다행”

전주대 출신 김영권 선수 독일전 2-0 승리 이끌어

전주대 출신 김영권 선수(28·광저우 에버그란데)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한국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김영권 선수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최종 3차전 독일과 경기에서 극적인 골을 넣으며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꺾는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독일 수비수의 몸을 맞은 공을 김영권 선수는 놓치지 않고 독일의 골문 안으로 꽂아 넣었다.

전주대 축구분석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많이 뛰고, 한 발 더 뛰어주는, 투혼의 축구”가 독일전에서 보여졌다.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상대가 볼을 소유하고 하프라인을 넘어서면 5-4-1로

수비조직을 만들었다.”라고 경기를 평가했다. 이어 “코너킥에서 공격을 가한 김영권의 침착하게 골문을 열었다.”고 모교 출신 김영권 선수의 플레이를 칭찬했다.

김영권 선수는 전주에서 태어나 해성중학교, 전주 공고를 거쳐 실력을 키웠다. 전주대학교에 입학한 뒤부터 그의 화려한 축구 인생이 시작됐다. 1학년이었던 그는 2008년 춘계대학연맹전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2009년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출전하고,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 동메달에 기여했다. 김영권은 프로축구에서도 러브콜을 받으며 활약했다. 2010년 일본 FC도쿄에 입단하고 의미 있을 거처 2012년에는 중국 광저우 에버그란데 FC에 입단했다.



김영권 선수는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희생하고 발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학교 정진혁 감독도 “김영권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선수였다. 언젠가는 정상에 오를 인재라고 생각했다.”라고 회고했다.

아쉽게 대한민국 대표팀은 16강전에서 탈락했지만 김영권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힐링캠프 프로그램 성료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김진 관장)은 최근 전북지역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프로그램 ‘우리 함께! 3개월 happiness의 세상속으로’ 행사를 군산과 부안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힐링캠프 프로그램은 전북 도시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과 전북지역의 4개(고창, 무주, 익산, 진안)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1일차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람과 부안누에터전에서 해초피치 팸플리 만들기 체험을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대한민국 전라창작향토가요제 성료... 도·시민 2000여명 참석

제1회 대한민국 전라창작향토가요제가 최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최초로 열렸다. 이 가요제는 ‘전라향토문화음악발전협회’의 주최와 익산향토기업 ‘kan금강방송’ 주관으로 익산시장 정현을, 국회의원 조배숙, 시의원 유재구, 시의원 장경호, 창작향토가요제 공동위원장,북원환경감시중임회 회장 장석순을 비롯해 가수(박일준, 현자, 김지민·한유빈, 여 걸그룹 4인조 세컨즈), 도민, 시민 2000여명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참가자로는 전국에선 총53명 중 12명 본선진출자가 가려졌고, 이 중에서 대상에는 익산창작향토곡 소중환익산 최대성, 금상에는 창작향토곡 새민금 최소연, 은상에는 익산창작향토곡 서울참가자 성당포구 김백기들이 수상, 부상으로는 상급과 가수인증서를 받았다.

전라향토문화음악발전협회 구정수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해 열리는 제2회 전국 전라창작향토가요제는 독립적 향토가요로 순수성 보장, 전국 참가자 모두가 창작향토곡으로 하는 가요제를 치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 가요제를 만드는게 꿈이었고 그 현실이 익산에서 이루어졌다.”며 아울러 “꿈꾸는 지민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회 전라창작향토가요제 구정수 추진위원장(시인, 작사가)은 향토시인과 향토작사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작품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노래 발표(가수 성진우, 서지오, ‘함께해요 평창’)로 자랑스런 전북의 아들이기도 하다. /김영태 기자

원광대 로스쿨, 장수군서 무료법률 봉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덕중)이 지난 25일 장수군에서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016년 무료법률상담으로 인연을 맺은 장수군의 지역주민 권리를 위해 이루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심용재 리걸클리닉센터장은 “앞으로도 봉사단 방문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도내 무변촌 지역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가 없는 전북 농어촌 및 도서지역을 방문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특제인 천만송이국화축제에 참여하고, 동계 무변촌 무료법률상담도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2018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육선마켓&경진대회’를 26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교과목 결과물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성과 창출과 창의아이템 개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이공계열과 비이공계열로 나뉘어 총 17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66개 팀이 본선에 올라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VR 온라인 PC게임’ 아이템을 출품한 전자공학과 ‘뜨뜨네 집으로(김주형·장지훈·최성진·최대하·김현성)’ 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 밖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년버스킹’과 자외선 차단 ‘헤어미스트’, 근거리 ‘무선충전기’ 등 전공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시제품들이 출품돼 창업 가능성을 엿보였다.

한편,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오피엘이디와 전자공학과 2Kos(김현중·고영진·김대훈·서동민) 팀이 IoT 주차장 아이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촌)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8
010-96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주지사 010-66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